

# 조선시대 견직물의 생산과 유통

성심외국어대학 전통의상과

강사 장 현 주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권 영 숙

## 目次

I. 서론

II. 견직물의 생산

1. 양잠실태

2. 제직실태

III. 견직물의 유통

1. 京市[市廛, 六矣廛]를 통한 유통

2. 鄕市[場市]를 통한 유통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조선시대의 직물에는 견직물, 면직물, 저마직물, 대마직물, 교직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목면은 고려말기에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 서민용 의료를 대표하는 직물이었다. 또한 의료로서뿐만 아니라 화폐의 기능을 가져 대일무역의 주요 교역품이기도 했다. 면직물이 이와같이 서민층의 의료로 널리 사용된데 비해 견직물은 상류층의 의료 및 공물의 대상으로 꾸준히 생산되고 특히 綿紬는 면직물과 같은 화폐의 기능을 가지면서 대중국 무역의 교역품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5C에는 권잠정책으로 인해 양잠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견직물 생산은 단순한 공물생산의 단계에서 벗어나 부업적인 성격도 띄게 되었다. 16C에 이르러 사치풍조와 함께 관장제 수공업의 붕괴에 따른 민간 수공업의 발달과 견직물 수요 증대, 그리

고 상업적 분위기의 성장 등으로 견직물이 주요한 상품으로 발전하는 듯했다.<sup>1)</sup> 그러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면직물의 생산증대와 더불어 고급 견직물의 생산은 저조하게 되었으며 각 지방에서는 그 지역 나름대로 土產 紬織물이 생산, 유통된다.

本 考에서는 견직물의 생산을 양잠실태, 제직구조 및 주요생산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市廛과 場市를 통한 견직물의 유통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견직물의 생산

견직물의 생산에 대해서 크게 양잠실태와 제직실태로 구분하고 먼저 양잠실태를 勸桑정책, 蠶室설치, 蠶書간행, 先蠶禮 및 親蠶禮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 시기의 제직실태를 제직구조와 주요생산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의명, 15,16세기 양잠정책과 그 성과,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 24, 1991, p140

## 1. 양잠실태

### 1) 勸桑정책

조선시대 勸桑정책에 관한 기록에 태종 10년(1410) “前代의 六典에 있는 種桑之法이 지켜지지 않자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前代의 정책을 강화하였다.”<sup>2)</sup>고 하므로 조선 초기부터 勸桑정책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조대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많은 勸桑기록이 있는데 5년(1458)에는 양잠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양잠조건’을 제정, 반포하여 官 중심의 勸桑정책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비로소 양잠이 농가까지 확산될수 있는 계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 “평안, 함길 양도는 처음에는 토질이 척박해서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양잠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안남도나 함길도의 모든 읍을 보면 뽕나무가 무성하고 양잠을 하는 농가가 매우 많으니 금년부터 兩道 諸邑에 위의 예를 따라 뽕나무를 심고 2-3년 성장시킨 후 관찰사가 필요한 蠶種을 결정해서 본 조에 보고하면 제량하여 보내주겠다”<sup>3)</sup>라는 기록이 있다. 또 세조 7년(1461)에는 함길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北道の 여러 지역에 오디를 보내어 심게하고 뽕나무를 가꾸도록 장려하였다<sup>4)</sup>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북방지역까지 민가용 뽕나무 재배를 추진하여 민간

의 양잠기술의 보급과 개선에 큰 몫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고종 20년(1883) 蠶桑규칙 제 1조에는 “매 上戶(대농)는 산뽕나무 50주, 中戶(중농)는 30주, 下戶는 20주를 심어야 한다. 이 수에 미치지 않는 자는 문책하고 벌을 줄 것이다.” 제 4조에는 “뽕나무 10만주 이상 심은 자는 마땅히 벼슬과 상을 줄 것이며 --태만하고 뽕나무를 심지 않거나 혹은 단지 뽕나무 그루수만을 충당하고 기르는데 힘쓰지 않은 자도 그 경중을 가려 벌을 줄 것이며 혹 무단히 베거나 뽑아 버리는 자도 마땅히 법을 적용할 것이다.”고 되어 있다.<sup>5)</sup>

이상으로 보아 조선초기부터 꾸준히 勸桑정책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蠶室설치

蠶室은 백성들에게 養蠶法을 가르치고<sup>6)</sup> 시범을 보여서<sup>7)</sup> 양잠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蠶室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양잠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이 전 직업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다. 蠶室은 中央蠶室과 각 지방에 설치된 地方蠶室으로 나눈다.

#### (1) 地方蠶室(都會蠶室) 설치

태종 16년(1416)에 최초로 경기도 楊根郡 迷原, 加平郡 朝宗에 잠실을 설치했으며<sup>8)</sup> 태종 17년(1419)

2) 太宗實錄 卷 20, 太宗 10年(庚寅) 11月 戊子 「司憲府上書 書曰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 帛矣此 聖人制民常產之法也 我朝種桑之法 載在六典 裕民之道---上從之 命種植之法 限年行移」

3) ① 世祖實錄 卷 16, 世祖 5年(己卯) 6月 戊寅 「平安咸吉兩道 初以土薄非 宜桑之地 植桑養蠶之事 並不措置 然平安南道及咸吉諸邑 桑木茂盛養蠶民戶頗多 始今年 於兩道諸邑 依上項栽植例 特二三年成長後 觀察使 酌定蠶種報本曹 計長分送」

② 조선기술발전사 4, 이조후기편, 백산자료원, P226

4) 世祖實錄 卷 23, 世祖 7年(辛巳) 3月 辛酉 「承政院 奉旨馳書于咸吉道觀察使曰 多取桑椹 分送北道 諸邑 今依法種之」

5) 「---每上戶種五十株 中戶種三十株 下戶種二十株 其添數多種者 雖至萬株 有獎無禁 如或不及此數則 該民及該里執網俱有責罪---植桑十萬株以上 當有爵賞 其餘優數宜施賞 倘有慢令不種者 或但充株數而 不務培養者 視其輕重 亦有勸罰 如或無端刈拔者 當施重律」

6) 太宗實錄 卷 31, 太宗 16年(丙申) 4月 癸亥 「令民間學養蠶法」

7) 太宗實錄 卷 36, 太宗 18年(戊戌) 7月 庚戌 「示民善蠶之方」

에는 북방을 제외한 각 도에 한 곳씩 즉 加平(경기), 淸風(충청), 遂安(황해), 義城(경상), 泰仁(전라)에 地方蠶室을 설치하였다.<sup>9)</sup> 또 세종대에는 홍천(강원도)에 설치했으며<sup>10)</sup> 이미 地方蠶室이 설치된 5도 이외에 평안도, 함길도에도 설치했다는 기록 등이 있어 북방지역에도 양잠을 장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태종대에는 대체로 남쪽지역(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에 먼저 蠶室을 설치한 후 세종대에 이르러 북쪽지역(평안, 함경도)에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 (2) 中央蠶室 설치

세종 5년 “蠶室別坐 大護軍 李士欽, 前知軍事 徐係稜이 아뢰기를 景福宮內 뽕나무 3590株, 昌德宮內 뽕나무 1천여 株, 栗島 뽕나무 8280株로는 누에 씨 3斤 10兩을 칠수 있으므로 경복궁, 창덕궁 두 蠶

室에 각각 누에서 21兩씩 주도록 명하소서”<sup>11)</sup> 한 것으로 보아 경복궁, 창덕궁에 中央蠶室을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中央蠶室과 地方蠶室은 설치 직후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나타나며<sup>12)</sup> 실제로 중종대에는 蠶室이 폐지되었다.<sup>13)</sup>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중종대에 등장한 사림파를 들 수 있다. 사림파는 대개 지방의 중소지주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지식인들로서 이들의 주요 정치적인 쟁점은 훈신, 척신들의 비리행위였다. 그리고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개기술 및 養蠶織帛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sup>14)</sup> 방납, 군포, 강제적인 인력동원 등에 대해 철저히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수탈행위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폐지를 주장<sup>15)</sup>하였다. 이들의 蠶室 폐지도 여기서 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蠶室관리자가 蠶室에서 생산되는 고치의 多少에 따라 考課를 판정받았기 때

8) 太宗實錄 卷 31, 太宗 16年(丙申) 2月 丁亥 「新置朝宗迷原蠶室 各屬蠶母十名 從婢十名 奴子 二十 名判承文院事 李述 上書曰 --- 臣迹謹受命 巡訪京畿楊根迷原 加平朝宗 永平等」

9) 太宗實錄 卷 33, 太宗 17年(丁酉) 正月 戊戌 「定各道蠶所 遣使監之 開城府留後司 內蟾小尹李士 欽 京畿加平 前農儲倉使 李文幹 忠淸道淸風 內資少尹吳乙濟 慶尙道義城 前司宰注簿裴素 黃海道遂 安 前司宰少監 徐係稜 全羅道 泰仁 前經歷柳翼之 分置斯所者 所以使民效之也」

10) 世宗實錄 卷 152, 地理志 江原道 洪川縣條 「蠶室在縣東十里 曳谷」

11) 世宗實錄 卷 19, 世宗 5年(癸卯) 2月 丁亥 「蠶室別坐大護軍李士欽 前知郡使徐係稜等啓 景福宮內 桑木三千五百九十條 昌德宮內 桑木 一千餘條 栗島桑木 八千二百八十條 可飼蠶種三斤十兩 命景福宮昌德宮 兩蠶室 各給蠶種二十一兩」

12) ① 世宗實錄 卷 43, 世宗 11年(己酉) 3月 丙辰 「忠淸道監司 具啓蠶室養蠶之幣 上謂知申事鄭欽之曰 公桑蠶室其來尙矣然我國養蠶之事擾民實多 故往者 稍除其幣其下戶曹 更條列其幣以問欽之對 曰養蠶供役者---」

② 世祖實錄 卷 28, 世祖 8年(壬午) 4月 癸未 「內外蠶室及岾嵯山蠶室 各獻新繭外蠶室最多 時外蠶室 則尙衣院主之內蠶室岾嵯山則宦官主之 以繭多少---」

③ 世祖實錄 卷 46, 世祖 14年(戊子) 5月 壬午 「有人密告曰 蠶室○桑軍等 各率私養蠶人 採民家桑---」

④ 端宗實錄 卷 12, 端宗 2年(癸酉) 9月 甲子 「議政府 據戶曹啓 --- 請自今罷都會於宜桑諸邑」

13) ① 中宗實錄 卷 28, 中宗 12年(丁丑) 6月 丙寅 「而又設新蠶室 ○益其幣--- 新蠶室事 先王朝 至於給田原 以爲樹桑養蠶之地 今不可革也」

② 中宗實錄 卷 29, 中宗 12年(丁丑) 8月 壬戌 「傳曰 蠶室雖只設東西 可見務本之意則新蠶室法外 之設幣亦不無可革之 然而沿革雖甚小事」

14) 이태진, 한국사학회연구 -농업기술 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p300

15) 이태진, 前掲書, p301

문에 민간인을役に 동원시키며 민가의 桑葉을 갈취하고 민가의 蠶具를 동원시키는 등 각종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두번째로, 연산군대의 사치풍조의 팽배를 들 수 있다. 이 사치풍조는 사대부가뿐만이 아니라 서민층에까지 미쳤으므로 만연해진 사치풍조를 금하고 이로 인한 신분질서의 붕괴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고급 의료인 견직물의 원료 생산 자체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蠶書간행

蠶書간행은 조선시대 초 시대를 걸쳐 이루어져 왔으며 이 시기의 勸蠶에 대한 의지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비록 처음에는 중국의 農, 蠶書를 이용했지만 더 필요성을 느끼면서 부터는 이를 초록으로 만들거나 이두,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더욱 새로운 蠶書가 되도록 노력했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양잠 관계서적을 총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양잠관계 서적

書名	著者	編纂年代	備考
農桑輯要 (魏譯本)	이암	고려시대 (의종14년)	· 農桑의 대본이 되는 농서 ┌ 3권 栽桑 └ 4권 養蠶
養蠶方 (漢文 및 吏讀)	이행, 박재중	1414년 12월 →1417년 이두번역 간행	· 양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침서로 농상집요를 요약한 것.
養蠶經驗撮要 (吏讀)	한상덕 번역 (원문:이두)	1415년	· 우리나라 농서 중 가장 오래됨. ┌ 표제: 양잠경 └ 내제: 양잠경험촬요 · 농상집요 중 양잠편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요약
蠶書註解	서강, 이관	세조5년(1458년) 2월	· 잠업기술 보급을 목적
蠶書	양성지	세조5년(1458년)10월	· 양잠기술 전문서적
諺解蠶書(1)	최항, 한계희등 문신 30여명	세조7년(1460년) 3월	· 잠업진흥을 목적(우리말로 번역)
諺解蠶書(2)	김안국	중종13년(1500년)4월	
農桑畜牧書	신숙주	세조13년(1466년)	· 농림, 축산, 양잠, 제상에 관한 일종의 종합농서
四時蠶要抄 (농가집성의 下篇에 있음)	四時蠶要: 한악 四時蠶要抄: 강희명 (우리나라의 중요 부분만 抄本)	四時蠶要: 唐말기 四時蠶要抄: 1423년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	· 연중을 사시로 나누어 1-12월에 농가에서 해야할 일을 기록 · 잠상에 관한 것은 빠짐
農家集成	신숙 편저	효종6년(1654년)	· 농사직설과 勸農文 四時蠶要抄를 합해 만든것
繭經	박세당	숙종2년(1676년)	· 養蠶, 養桑法

(출처 : 김영진, 『蠶絲學古典研究』, 대한잠사회, 1972년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표 1〉 계속

書名	著者	編纂年代	備考
山林經濟	홍만선	편찬연대:불분명 생존연대:1643-1751년	· 양잠
增補山林經濟	유증임	영조 42년(1766년)	· 양잠
親錄儀軌	李氏, 申氏	영조43년(1767년) 3월 →1919년 다시 수정	· 성종, 중종, 선조代 친잠의식 기록 → 왕실에서 행한 친잠례가 얼마나 거국적이었나를 엿볼수 있으며 동시에 당시의 친잠정책이 얼마나 강했나 알 수 있는 자료 · 규장각, 장서각 소장
攷事新書 (攷事撮要의 增補)	서명음 편저 15권 7책	영조47년(1771년) 완성	· 11권 種桑 · 12권 蠶蠶
林園經濟志 (林園 16志)	서유구 16권	편찬연대:불분명 (19C전반기로추정) 생존연대:1764~1845년	· 제12권 전공지 1-2권 織紵 →염색 →무늬넣는법
蠶桑撮要	이우규	고종 21년(1884년)	· 蠶桑 전문도서(저술연대가 늦다) · 蠶桑에 쓰이는 각종 蠶具를 도해설명 · 중국의 蠶桑局 規條 수록 → 각국과 통상조약 체결후 문호 개방하여 들어온 최신 중국 서적을 참고로 엮은 저서.
農課規則	3편	고종20년(1883년) 11월 29일	· 중앙행정기구인 동리군국사무아문 農商司에서 발표한 법령집 · 제3편에 잠상규칙이 있다.
蠶桑輯要 (한문판)	심병성	1871년	· 蠶桑 원론 (양잠용구 사용법을 주해 붙여 도시)
蠶桑輯要 (한글판)	이우규		· 蠶桑 원론 (양잠용구 사용법을 주해 붙여 도시) →한글로 본서를 지은것

4) 先蠶禮·親蠶禮

(1) 先蠶禮

先蠶禮는 중국의 황제비였던 蠶神 西陵氏의 神位를 配享하고 매년 3월 일정한 규격의 壇을 만들고 제사하는 의식이다.

正宗 2년(1400년)에 처음 시작했으며<sup>16)</sup> 태종 13년(1413)에는 先蠶禮를 종묘사직 다음의 중요한 일로 구분했다.<sup>17)</sup> 또 世宗代에는 先蠶禮에 관한 모든 의식이 정비되어 先蠶儀式<sup>18)</sup>과 先蠶樂章<sup>19)</sup>을 만들었다.

16) 定宗實錄 卷 3, 定宗 2年(己卯) 3月 己巳 「初祀先蠶」

17) 太宗實錄 卷 25, 太宗 13年(癸巳) 4月 辛酉 「禮曹上諸祀之制啓 曰謹按前朝詳定古今禮 社稷宗廟 別廟爲大祀 先農先蠶---」

18) 世宗實錄 卷 131, 五禮·吉禮儀式(先蠶) 享先蠶儀條

19) 世宗實錄 卷 147, 樂譜·樂章(風雲雷雨山川城隍·先農·先蠶) 先蠶樂章條

## (2) 親蠶禮

親蠶禮는 왕비가 직접 養蠶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에는 성종 7년(1476년)부터 親蠶應行節目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成宗 8년(1479)에 親蠶應行節目을 제정했다. 그리고 親蠶을 할 때 입는 옷은 鞠衣로 정했다.<sup>20)</sup>

## 2. 제직 실태

조선시대 견직물의 제직실태를 제직구조와 주요 생산지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직구조

조선시대의 견직물 제직구조는 궁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공장을 중심으로 한 관장제 수공업 즉 전업적 工匠 수공업과 독립수공업자나 농촌수공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수공업 즉 부업적 수공업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각 시기별 제직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관장제 수공업

##### ① 14~16세기

이 시기의 견직물 생산은 주로 관장제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직조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장인을 두고 관원의 감독하에 우수한 제품을 생산했다. 견직물 제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인은 경공장 소속의 尙衣院, 內資寺, 內贍寺, 濟用監의 綾羅匠과 紡織匠이다.

成宗 2년(1471년)에 편찬된 「經國大典」에는 尙衣院에 소속된 工匠은 597명으로 경공장 소속의 이

들 중 고급 견직물인 綾, 羅를 제직한 綾羅匠은 105명이다. 그 외 각종직물을 제직한 紡織匠으로는 尙衣院에 20명, 內資寺, 內贍寺, 濟用監에 각각 30명씩으로 모두 110명이 소속되어 있다.

京工匠에 소속된 匠人은 그 직종 주무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에 소속되는 보조업자 혹은 고용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sup>21)</sup>과 총 129점의 工匠 중 50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沙器匠(3868명), 鍊匠(230명), 紙匠(85명) 등의 13점 뿐이며<sup>22)</sup> 여기에 紡織匠(110명), 綾羅匠(105명)이 포함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초기 관장제 수공업에서 직물 제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尙衣院의 綾羅匠이 中下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織匠은 25일, 引紋匠은 20일, 緯奉足은 15일의 근무 일수를 인정하지 않고 下上品이나 下下品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織匠은 50일, 引紋匠은 40일, 緯奉足은 20일을 삭감한다고 규정<sup>23)</sup>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尙衣院에서 綾, 羅, 紵絲 등의 고급 견직물을 제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太宗 17년(1417년) 內資寺에서는 蠶室에서 공납한 실로 紗와 綾 각각 3필과 지방의 眞絲로 짠 段子 1필을 바쳤다<sup>24)</sup>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 內資寺의 匠人들도 紗, 綾, 緞의 고급 견직물을 제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世宗代에는 內資寺, 內贍寺에서는 綾, 羅를 짤 수 없게 하고 그 綾羅匠을 尙衣院에 이속시킴으로 綾, 羅의 직조는 尙衣院에서만 전담하게 하여<sup>25)</sup> 內資寺, 內贍寺의 활동을 축소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고정적인 제직 관사 이외 대량의 직물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직물 생산

20) 練黎室記述 卷之四 祀典典故諸壇

21) 김석담의 1人, 조선경제사탐구, 서울:범우사:1990년, P198

22) 김석담의 1人, 前揭書, p207

23) 「大典續錄」 工典 雜令條

24) 太宗實錄 卷 34, 太宗 17年(丁酉) 8月 乙巳 「內資寺 獻紗綾各三匹以蠶室所獻之絲織之也 弁獻鄉 眞絲所織段子一匹」

25) 世宗實錄 卷 18, 世宗 4年(壬寅) 10月 乙未 「命內資內贍寺勿織綾羅 其工匠屬于尙衣院」

26) 조효숙, 조선전기의 견직물발달에 관한 연구 I, 경원대 생활과학지 1호, 1995, p9

기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여기에는 段子織造色, 織造司, 通織 등이 있다.

太宗 16년(1416)에 관복용의 직물을 짜기 위하여 段子織造色을 설치하였다.<sup>27)</sup> 세종 12년(1430)에는 직물의 질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직조에 종사하는 織造婢를 모아다가 織造司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며<sup>28)</sup> 燕山君 10년(1504)에는 견직물 수요가 급증하자 通織을 설치하고 監織官을 두어 織造匠, 引紋匠, 執經匠, 執緯匠, 染匠 등의 전업적 장인들이 고급 문직물을 생산하도록 감독하였다.<sup>29)</sup>

## ② 17세기~19세기

현종 5년(1663년)에는 尙衣院에서 錦織色을 금지하고 있으며 英祖 10년(1734년)에는 이미 尙方의 직조기가 철거된 상태<sup>30)</sup>였다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세기의 燕山君代와 中宗代를 기점으로 관장제 직조기관에서 紗, 羅, 綾, 緞, 錦과 같은 고급 견직물을 제작하는 것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孝宗 2년(1650년)에 “시장에서 살수가 없어 종전부터 尙衣院에서 매년 4색의 大緞을 12필씩 제작하였다.”<sup>31)</sup> 英祖 22년(1746년)에는 “尙方의 匠人에게 赤, 靑, 玄, 縹, 綠緞을 직조하되 무늬를 없게 하고---”<sup>32)</sup> 英祖 23년(1747년)에는 “紋緞 금지령으로 尙方에서 직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전례대로 직조하기를 허락하는---”<sup>33)</sup> 등의 기록이 나타나므로 궁중과 같은 특별한 수요를 위해 관장수공업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민간수공업

### ① 14, 15C

이 시기 민간수공업에 의한 견직물의 생산은 공물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산주체는 주로 농민이고 그 밖에 약간의 立役匠人들이었으며, 농민들은 부업으로 농사일 틈틈이 영세한 환경에서 제작하였고 중앙의 立役匠人들은 번차의 실시로 관부에 동원되지 않은 기간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私的 제조를 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이 이루어진 민간수공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관장제 수공업장에서와 같이 생산과정에서의 분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작한 직물의 종류도 紗, 羅, 綾, 緞과 같은 고급직물이라기 보다는 평직으로 된 綿紬가 주종을 이루었다.

### ② 16C

燕山君代에 들어서면서 만연해진 사치풍조, 전반적인 농업 생산력 향상, 지방 場市의 발달, 綿紬와 綿布의 화폐적 기능 등의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민간 직물제조업은 15세기보다 발전하였다. 16세기초 燕山君代에 이르러서는 紗, 羅, 綾, 緞 등의 견직물로 옷을 해입는 것을 통제하던 규정을 완화하고 수백명의 전문 상공인을 더 지정하고 또 수도 5부의 民家들에서 綾羅직조업을 전승하도록 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은 私織이 활발해지자 직조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민가에서도 평직으로 짠 綿紬 이외에 고급 緞까지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27) 太宗實錄 卷31,太宗 16年(丙申) 5月 乙亥

28) 世宗實錄 卷 49, 世宗 12年(庚戌) 9月 己酉 「上曰 古有織造司乎 --專治織造 則亦必極善-- 今乃 若是 其議設織造司」

29) 조효숙, 前掲書, p9

30) 英祖實錄 卷 37, 英祖 10年(甲寅) 2月 辛亥 「尙方織造機 頃已撤棄矣」

31) 孝宗實錄 卷 7, 孝宗 2年(辛卯) 8月 己酉 「尙衣院啓曰 本院每年所織四色大段十二匹--」

32) 英祖實錄 卷 57, 英祖 19年(癸亥) 4月 丁酉 「上之二十二年禁紋緞後令尙方織造赤靑玄縹綠緞而無紋--」

33) 英祖實錄 卷 65, 英祖 23年(丁卯) 2月 己巳 「烟請復尙方織造 不許 紋緞既禁之後--此後則依教命 織造 例自尙方造成--」

34) 조효숙, 前掲書, p10

35) 燕山君日記 卷 60, 燕山君 10年(乙丑) 12月 辛未 「傳曰 紗羅綾緞 已許通着 而織造之方 不可不廣 自今加匠人數百 俾勤其業 令五部洞論人家 以廣傳習--」

그리고 특히 燕山君代와 中宗代에는 私織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③ 17~19세기

고급 견직물에 대한 제직 금지령, 사치 금지령, 무역금지령, 私織금지령이 끊임없이 내려짐으로 인해 紗, 羅, 綾, 緞과 같은 고급 견직물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특별한 용도로(대부분이 궁중수요) 유통되었다. 綿紬와 같은 비교적 제직이 간단한 평견직물만이 국내에서 제직되어 각 지방별 토산주가 생산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면직물이 가장 대표적인 의료이었다.

2) 주요생산지

조선시대 견직물의 주요 생산지를 15~16세기(조선전기)와 17~19세기(조선후기)로 구별하여 알아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각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외에 지방에 따라 일정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지역이 형성됨으로써 품종별 제품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8세기말에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sup>37)</sup>

고급 견직물인 羅, 緞 등의 명칭은 평안도 영변 지역의 칠색단과 덕천등지의 향라 외에는 없으며

<표 2> 견직물 생산지역

	15~16C	17~19C
황해도	瑞興, 鳳山, 安岳, 谷山, 遂安, 신은, 載寧, 長連, 豐川, 平山, 우봉, 寬山, 강음, 長湍	平山, 谷山, 海州, 寬山(寬山紬), 黃州(絲), 瑞興(絲), 鳳山(絲), 安岳(絲), 載寧(絲), 遂安(絲), 信川(絲), 文化(絲), 海州(紫紬, 絲), 豐川(絲), 登津(絲), 殷栗(絲), 康翎(絲), 長湍(絲)
함경도	威興, 永興, 定平, 高原, 安邊, 德原, 文川, 利原, 洪原, 端川, 吉州, 明川, 鏡城, 會率, 은성, 鐘城, 慶源, 慶興	威興(絲), 永興(絲), 定平(絲), 高原(絲), 安邊(絲), 德原(絲), 文川(絲), 北靑(絲), 利原(絲), 洪原(絲), 端川(絲), 明川(絲), 吉州(絲)
평안도	成川, 寧邊, 德川, 安州, 順川, 价川, 泰川, 熙川	成川(明紬, 분주, 絲), 祥原(明紬, 絲), 德川(尙羅, 絲) 寧邊(合絲紬, 斑紬, 尙羅, 七色緞, 絲), 泰川(泰紬), 熙川(熙川紬, 絲), 安州(明紬, 尙羅, 絲), 宣川(明紬, 絲), 平壤(絲), 中和(絲), 威從(絲), 順安(絲), 江西(絲), 龍岡(絲), 甑山(絲), 永柔(絲), 嘉山(絲), 肅川(絲), 安州(絲), 三和(絲), 博川(絲), 鐵山(絲), 龜城(絲), 定州(絲), 郭山(絲), 龍川(絲), 昌城(絲), 慈山(絲), 順川(絲), 价川(尙羅, 絲), 三登(絲), 江東(絲), 殷山(絲), 陽德(絲), 孟山(絲), 雲山(絲), 寧遠(絲), 碧潼(絲), 楚山(絲), 渭原(絲), 江界(絲), 朔州(絲), 義州(絲)
강원도		鐵原(鐵原紬)
경기도	開城, 楊根, 加平(잠실설치)	楊州(絲), 長湍(絲)
충청도	淸風(잠실설치)	
전라도	泰仁(잠실설치)	羅州(明紬, 후주)
경상도	義城(잠실설치)	

(출처 : ① 「林園經濟地(5)」 倪圭志 中 八域物産條

②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1991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36) ① 中宗實錄 卷 20, 中宗 9年(甲戌) 2月 壬戌 「至於自家私織奢侈成習---

② 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丙子) 10月 甲戌 「今因奢侈而欲禁之可矣---今當痛禁私織」

③ 中宗實錄 卷 26, 中宗 11年(丙子) 10月 丙子 「---上曰私織與唐貨皆今禁止---

37) 조선기술발전사 5, 이조후기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p40-41



명주, 합사주 등의 각 지역 토산주가 고작이다. 그리고 絲라고 지칭한 것은 견사, 견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실, 고급 견직물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표 2>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견직업의 중심지가 북쪽지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뽕나무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의 각 도에 심어져서 양잠이 행해졌기 때문에 견직물도 조선 全道에서 생산되었지만 그 중 평안, 함경, 황해도와 같은 북쪽지방이 주생산지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연기후 조건을 들 수 있다. 견직물이 상류층 의류, 삼베와 모시가 여름용 의류인데 비해 사계절용 일상복, 작업복 의류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면직물의 소재인 목화는 평균온도 20~30℃의 아열대지방이 가장 적절한 산지라고 하므로 우리나라의 남쪽지방에서 재배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 결과 상류층의료로 그 수요가 꾸준했던 견직물 생산은 면화재배가 거의 불가능한 북쪽지역에 치우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목화재배기술의 발전과 품종개량으로 황해도, 강원도 일부, 평안도와 경기도지역에서도 목화가 일부 재배되었다.<sup>38)</sup>

둘째, 노동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누에를 봄에만 사육하여 농번기에 농사와 양잠을 동시에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삼의 경우과 같이 두레를 통한 공동노동으로 여름철에 끝낼 필요가 전혀 없으며 목면 방적은 서리가 내린 뒤 비교적 농번기에 착수해도 늦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중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벼농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남부지역

에서는 농번기에 누에치기를 함께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각 시기별 견직물 생산지역을 보면 먼저 15~16세기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가 중심지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황해도의 수안지역은 대표적인 견직업 중심지로 국영 양잠 작업장을 설치하였던 곳이다.<sup>39)</sup> 그리고 함경도지역은 마직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견직업도 함께 병행하였으며<sup>40)</sup> 경기도의 개성, 楊根, 加平, 충청도의 淸風, 전라도의 秦仁, 경상도의 義城에는 蠶室이 설치되었다.

17~19세기에도 여전히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지역이 대표적인 견직업 생산지역이었다. 특히 평안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견직업과 양잠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 국내 최대 견직업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평안도 成川은 분주, 祥原은 明紬, 寧邊은 合絲紬, 德川은 尙羅의 명산지이다.

成川의 분주는 평안도의 분주라고 불릴만큼 평안도의 대표적인 견직물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가느실꾸리 하나로 明紬 한 필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섬세하고 치밀하여 그 질이 국내 으뜸이다.<sup>41)</sup>

成川에 인접한 江東지역에서는 견직업의 원료생산을 위한 뽕과 누에를 치는 잠상업지역이 형성되어 成川이 견직업 지역이었다고 하면 강동지역은 원료생산을 위한 잠상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2)</sup>

寧邊의 合絲紬는 겹쳐드린 명주실로 짠 견직물로 여기서 模本緞 직조기술이 새로 발전하였으며 합사주 직조에 사용되는 여러 실들을 겹쳐 굵은 실을 뽑는 합사기가 개발되어 견직업 발전에 진전이 있었다.<sup>43)</sup>

德川지역은 蠶字가 붙은 지명이 많이 보이는 것

38) 조선기술발전사 5, 前掲書, p189

39)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백산자료원, p99

40) 홍희유, 前掲書, p100

41) 홍희유, 前掲書, p231

42) 홍희유, 前掲書, p229

43) 홍희유, 前掲書, p229

으로 보아 견직업이 많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元羅가 발달하였다. 德川지역에서 元羅직조가 발달함에 따라 개천과 순천지역에서도 元羅가 발전하였으며 그 지역에서 생산된 元羅는 安州에 모았다가 각지로 유통되어 안주항라라는 이름이 생겨났다.<sup>44)</sup> 또 安州는 남성들에 의해 명주실로 수놓은 자수업이 발달하여 그 곳 자수업자들은 그것으로 대륙과 대외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다.<sup>45)</sup>

### III. 견직물의 유통

조선시대의 상설상점으로서의 市廛은 서울, 평양, 개성 그리고 정조때 조성된 수원 등 몇 곳의 도시에만 있었고 다른 지방의 시장은 원칙적으로 5일마다 열리는 정기 場市였다.<sup>46)</sup> 국내의 견직물 유통 상황을 京市[市廛, 六矣廛]와 鄕市[場市]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京市[市廛, 六矣廛]를 통한 유통

京市에서는 왕실·육조관아를 비롯한 각 관아·高官大爵宅의 물품 공급, 중국에 보내는 조공품, 그리고 왜곡·여진·유구 등에 보내는 回賜品の 조달을 맡고 있었으며 이 사절단을 따라 사무역을 행하는 사무역업자들의 수출품도 조달하였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품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으며 상등품과 진귀품, 외래품 등이 전시 판매되었으며 거래 수량이나 고객수는 시골 鄕市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다.

서울 市廛의 대표적인 것으로 六矣廛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주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 일행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품과 각 지

방 향시의 보부상이나 운송업자,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萬機要覽」에 나타난 六矣廛의 구성과 유통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萬機要覽」에 나타난 六矣廛의 구성과 취급상품

상점의 명칭	취급 품 목
線廛(縮廛,立廛)	貢緞, 大緞, 紗, 緞, 日光緞, 月光緞, 龍紋甲紗, 宮紵, 生紵 등 고급 견직물을 전문적으로 취급
白木廛 (綿布廛, 銀木廛)	唐津木, 海南木, 高陽木, 貢物木 등 면직물을 취급
紙廛	紙類를 취급
紵布廛(布廛)	細布, 中山布, 安東布, 唐布, 永春布, 門布, 계추리 등 마직물을 취급
綿紵廛(羽細廛)	주로 明紵직물을 취급
內外魚物廛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六矣廛은 6개 시장 중 4개가 직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이 시기 직물이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고급 견직물을 취급하는 線廛과 일반 明紵제품을 취급하는 綿紵廛, 마직물을 취급하는 紵布廛, 면직물을 취급하는 白木廛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線廛에서는 緞, 紗, 綃 등 고급 견직물이 유통되고 있었으나 이 線廛은 六矣廛 중에서 首廛격으로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시 재정적 실력이 있는 상인들에 의해 경영되었다. 여기서는 외국 수입품을 주로 취급하며 주고객이 왕실과 高官大爵宅이었다고 하므로 고급 견직물은 특별한 궁중 수요로 많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綿紵廛에서 취급된 綿紵는 의료로서 뿐만 아니라 화폐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15세기 綿布가 현물화폐로 되어 16세기 이후에는 布貨의 주종을 차지하지만 綿紵는 綿布보다 高價로 綿布가

44) 홍희유, 前掲書, p229

45) 홍희유, 前掲書, p228

46) 강만길, 市場과 商人, 한국사 시민강좌 제9집, 서울:일조각:1991, p16

많이 생산되지 못하던 시기까지는 綿布의 유출을 막아주고 綿布보다 가볍고 운반하기 편리하여 계속 해서 화폐로서 기능이 가졌다.

2. 鄉市[場市]를 통한 유통

場市가 문헌에 최초로 보이는 것은 成宗 4년(1474)이며<sup>47)</sup> 1529년경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sup>48)</sup> 場市는 일반 서민을 상대로 비교적 값싼 실용품을 전시, 판매한 곳으로 관허없는 자유상인으로 형성되었으며 市廩의 상인에 비해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여 이것은 市廩과 함께 도시 일반 서민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여기서 유통된 직물은 대부분 그 지역의 특산물일 가능성이 많다.

<표 4>는 林園經濟地(5) 倪圭志 中 八域場市條에서 유통된 직물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각 종 紬類가 대부분이며 그의 교직물과 絹絲, 그리고 고급 견직물로 알려진 緞종류도 있었다.

<표 4>에는 紬의 명칭이 明紬, 紬, 斑紬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明紬와 紬는 유통된 場市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직물을 지방에 따라 明紬 또는 紬로 다르게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紬직물은 영남지방에서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斑紬는 견사와 면사를 섞어 짠 견면교직물로서<sup>49)</sup> 아랑주라고도 하며<sup>50)</sup> 호서, 호남지역 場市에서 유통되었다. 그리고 호서, 호남지역에서 유통된 교직이라는 직물은 어떤 종류의 실들이 교직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것은 명종 11년(1556) 絲綿교직은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대부가에서는 이미 의복으로 널리 착용한 자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기

<표 4> 場市에서 유통된 각종 견직물

직물명	場市	
明 紬	경기 : 長湍	
	호서 : 忠州, 淸安	
	호남 : 南原, 靈巖, 昌平, 龍潭, 光陽, 康津, 南平, 興陽	
	영남 : 晉州, 寧海, 善山, 順興, 居昌, 淸道, 豊基, 梁山, 淸河, 咸昌, 高靈, 禮安, 昌寧, 三嘉	
	관동 : 江陵, 春川, 狼川, 洪川, 橫城, 安峽	
	해서 : 黃州, 瑞興, 遂安, 兔山	
	관서 : 寧邊, 成川, 中和, 順安, 陽德, 江東	
	관북 : 北靑	
	斑 紬	호서 : 公州
		호남 : 礪山, 樂安, 光州, 寶城
紬	경기 : 驪州, 坡州	
	호남 : 全州, 羅州, 光州	
	영남 : 安東, 昌原, 東來, 漆原, 尙州	
	관동 : 原州(紫紬)	
	해서 : 谷山	
	관서 : 平壤, 定州, 江界, 宣川, 義州	
紬 織	호서 : 公州	
	호남 : 礪山, 寶城	
緞	경기 : 驪州, 坡州	
	호남 : 全州, 羅州, 光州	
	영남 : 安東, 昌原, 尙州, 東來, 漆原	
	해서 : 谷山	
	관서 : 平壤, 定州, 江界, 宣川, 義州	
	관북 : 咸興	
絲	野蠶絲 호서 : 靑山	
	蘭 絲 호남 : 光州, 龍潭, 同福	
	蠶 絲 영남 : 星州, 順興, 昌寧	
	野蘭絲 해서 : 黃州	

(출처 : 林園經濟地(5) 倪圭志中 八域場市條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47) 이태진, 前掲書, p292

48) 中宗實錄 卷 38, 中宗 15年(庚辰) 3月 己酉 「今諸道皆設場門」

49) 漢韓大字典, 李相殷 監修, 민중서림, 1991, p557

林園經濟地 展功志 卷3, 「---又蘭絲爲經棉絲爲緯日交織蘭絲爲經而棉絲二樓蘭絲二樓相間爲緯日 斑紬---」

50) 漢韓大字典, 前掲書, p557

록<sup>51)</sup>뿐만 아니라 실증적 자료로 16세기 유물인 벽진이씨 출토복식 <경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중에 絲綿교직이 3점, 경주 이씨 출토복식중 2점 등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교직물은 특히 호서,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산,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고급 견직물로 알려진 緞織물이 지방특산물의 유통시장인 場市에서도 유통된 사실이다. 이 緞織물이 유통된 場市는 대부분 대도시로 큰 장이 서는 곳이며 특히 관서지방의 場市는 대청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場市가 대체로 그 지역의 특산물의 유통지이므로 실제로 緞織物이 그 지역에서 제직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대청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므로 수입된 緞織物이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고급견직물인 紗, 羅, 綾, 緞 등 대부분의 고급 견직물의 많은 양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관장수공업뿐만 아니라 민간수공업으로도 생산이 되었으므로 국내생산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방 場市에서 유통된 견직물이 수입품인지 혹은 국내생산품인지는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 IV. 결 언

조선시대 견직물의 생산과 국내유통을 중심으로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勸桑정책, 蠶室설치, 蠶書간행, 先蠶禮, 親蠶禮 등을 행하면서 장려한 결과 계속 이루어졌으며 남쪽지방에서 점차 북쪽지방으로 그 범위가 이동되어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선초기 면직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자연히 따뜻한 남쪽지방의 자연기후조건에 적합한 면화가 남쪽에서 활발히 재배

되면서부터 북쪽지역이 양잠의 중심지가 되었다.

둘째, 견직물의 생산은 초기에는 주로 관장제수공업에 의해, 후기에는 주로 민간수공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장제수공업에 의한 제직은 尙衣院, 內資寺, 內贍寺, 濟用監소속의 綾羅匠과 紡織匠에 의해 전업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는 綾, 羅 등의 고급 견직물이 궁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직되었다. 16C부터 관장제수공업이 쇠퇴하게 되자 민간수공업자에 의한 견직물 제직이 서서히 시도되어 특히 燕山君, 中宗代에는 私家에서도 紗, 羅, 綾, 緞 등의 제직과 함께 明紬, 綿布, 麻布, 苧布와 같이 비교적 제직이 간단한 평직물의 토산직물이 널리 제직되고 있었다.

셋째, 조선시대의 직물제직업은 면직물의 도입과 함께 모든 직물의 생산과 가공이 전국적인 범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각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외에 지방에 따라 일정한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형성됨으로써 각 지방별 특산제품으로 그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 특히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지역이 주요 견직물 생산지역이었다.

넷째, 이렇게 생산된 견직물은 市塵(六矣塵)과 場市를 통해서 국내에서 유통되었는데 주로 육의전에서 유통된 직물은 주로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단 일행을 통해 공급받는 수입품과 각 지방향시의 보부상이나 운송업자,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明紬뿐만이 아니라 각종 고급 견직물인 緞, 紗, 絹 등을 비롯한 고급직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도 있었으며 또 17, 18C를 지나면서는 중국 견직물의 무역금지령, 사치금지령이 끊임없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대량의 수입 견직물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특산물이 유통되었던 지방 場市에는 각종 紬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緞종류도 포함되어 있었다.

51) 明宗實錄 卷 20, 明宗 11年(丙辰) 6月 丙午 「至於絲綿雜織之衣 士大夫之家 備之甚易 故着之已久」

다섯째,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볼 때 조선시대에는 고급 견직물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상당량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 생산량의 대부분이 궁중 수요를 비롯한 극소수 계급에 한정되었고 그 부족한 양은 수입 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참고문헌

- 太宗實錄 卷 20, 卷 25, 卷 31, 卷 33, 卷 34, 卷 36
- 世祖實錄 卷 16, 卷 23
- 世宗實錄 卷 18, 卷 49, 卷 131, 卷 147, 卷 152
- 定宗實錄 卷 3
- 中宗實錄 卷 20, 卷 26, 卷 28, 卷 29, 卷 38
- 英祖實錄 卷 37, 卷 57
- 孝宗實錄 卷 7
- 燕山君日記 卷 60
- 明宗實錄 卷 20
- 練藜室記述 卷 4
- 大典續錄
- 儗齊叢話 卷 10
- 林園經濟地
- 萬機要覽
- 강만길, 市場과 商人, 한국사시민강좌 제9집, 서울:일조각:1991
- 이의명, 15,16세기 양잠정책과 그 성과,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 24, 1991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농업기술발달과 사회변동-, 지식산업사
- 김석담외 1인, 조선경제사탐구, 서울:범우사:1990년
- 조효숙, 조선전기의 견직물발달에 관한 연구 I, 경원대 생활과학지 1호, 1995
-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백산자료원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농업기술발달과 사회변동-, 1986, 지식산업사
- 조선기술발전사 4, 이조후기편, 백산자료원
- 조선기술발전사 5, 이조후기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 ABSTRACT

#### A Study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ilk Fabric in the CHO-SUN Er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ilk fabrics of the CHO-SUN Era.

My conclusions are the following :

First, the silkworm culture was advanced as a result of its promo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It proceeded from south to north, and spread all over the country. The north became the center of the silkworm culture since cotton was cultivated in the south.

Second, the production of silk fabrics proceeded by government orders at the beginning. But it proceeded by private enterprise at a later period. Since government-managed textile handicrafts began falling off during the 16th century, privately managed handicrafts were accomplished slowly.

Third, at the same time as the introduction of natural cotton fabrics, the production of various fabrics in the CHO-SUN Era proceeded all over the country, and special production localities formed.

PYUNGAN-DO(평안도), HAMKYUNG-DO(함경도), HOANG HAE-DO(황해도), and KYUNG SANG-DO(경상도) were the main region of silk fabric production.

Fourth, the silk fabrics were distributed through the capital markets(市廛) and the province mar-

kets(場市). And superior silk fabrics were distributed through the capital markets(市麿). And all sorts of low quality silks JU(紬) were distributed through the province markets(場市).

Fifth, thus an abundance of superior silk fabrics

was distributed in the CHO-SUN Era. But the quantity of production was not enough. And most of it was used in the Royal Court. The quantity of shortage was supplied by imports.